

아동복지학 전공자의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조혜영¹, 이희연^{2*}

¹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²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ost-COVID-19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otivation, and School Drop-Out Intention

HyeYoung Jo¹, HeeYeon Yi^{2*}

¹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nkuk University

²Department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아동복지학 전공자의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대학교 아동복지학 전공자 13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SPSS 25.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95% 신뢰구간 양측검정에서 부트스트랩(bootstrap)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첫째, 중도탈락의도를 중심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하위요인인 문제해결, 진로계획, 목표설정, 정보수집, 자기평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진로동기와 하위요인인 진로정체감, 진로통찰력, 진로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동기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동기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의 완전 매개효과임이 밝혀진 결과로 중도탈락의도를 상쇄하기 위해 이들 변인이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된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ost-COVID-19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otivation, and school drop-out intention among child welfare majors. The subjects were selected from 137 child welfare majors at S Univers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were conducted using SPSS 25.0 and AMOS 23.0. The bootstrap estimation method 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two-sided test was used to determine significanc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relations between variables centered on school drop-out intention we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post-COVID-19 stress. Also,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ub-factors of problem-solving, career planning, goal setting, information gathering, and self-evaluation, and between career motivation and the sub-factors, career identity, career insight, and career resilience. Second, the measurement model was identified as a suitable model for analysis. According to the structural model, the effect of post-COVID-19 stres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significant, while its effects on career motivation and school drop-out intention were not. In addi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ignificantly affected career motivation but not school drop-out intention and the effect of career motivation on school drop-out intention was significant. Third, although post-COVID-19 stress was not found to affect school drop-out intention directly, it indirectly affected drop-out intention through the path 'post-COVID-19 stress→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career motivation→school drop-out intention'. This study describes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otivation and confirms that these variables are important factors of school drop-out intention.

Keywords : Child Welfare Majors, Post-COVID-19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otivation, School Drop-out Intention, Structural Equation(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HeeYeon Yi(Sookmyung Women's University)

email: helena0613@sookmyung.ac.kr

Received July 24, 2023

Revised August 22, 2023

Accepted October 6, 2023

Published October 31, 2023

1. 서론

‘코로나19로 뒤바뀐 삶, 대학생활에 적응하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응능력과 역량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학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같이[1] 코로나19로 발생한 정서문제는 성공적인 대학생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는 다른 전염병에 비해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등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만큼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코로나19는 대학생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2] 대학생들은 상당한 부분에서 혼란을 경험했으리라 본다. 코로나19 시기인 2019년 부터 2021년 까지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이 1만 3,241명에서 1만 9,01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결국, 코로나19로 발생한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은 대학생들의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대상이 아동복지학 전공자 즉, 인문사회계열 재학생으로 코로나19로 이공계열에 비해 인문사회계열의 고용률이 6.1%하락 하였다는 점으로 본다면[3] 이들의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대상자는 아동복지학 전공자로 이들은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국가자격증 취득과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인관계가 중요시되는 교과목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4-7]. 그런데, 코로나19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한 역량을 신장시키는데 한계가 야기되었으리라 본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실습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학수업 방식이 비대면 형태의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져 실습, 실습 위주의 과목은 큰 혼란을 맞이하였다[8-10].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하여 이를 향상시켜 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주목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불안정한 정신은 성공적인 학업수행에 장애물이 된다는 점이다[11]. 특히, 18-24세 연령에서 불안정한 심리 정서적 위험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데[2], 코로나19로 인한 행동 제한은 스트레스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 사스(SARS)의 상황에 빗대어 보아도 신종전염병으로 발생하는 팬데믹 상황 이후 정신적 증후가 발

생됨과 같이[12] 일상생활의 반경이 비교적 넓은 집단에게 정서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13]. 이에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한 대학생 역시 관계형성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팬데믹 상황은 스트레스를 야기하고[14] 임상에서도 역시 중증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5,16].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텍사스 주립대학 재학생 13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불안요소가 증가되었음이 확인되었다[1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다시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중도탈락을 예방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보다 자율성이 부여되는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면 비대면 수업의 정책은 이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전면 비대면 교육이 실시되면서 활동에 제약이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군의 변화를 가져왔다[17]. 코로나19는 경제적 붕괴를 야기하였고, 이는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었다[8]. 이처럼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경제발전엔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미래의 삶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18] 진로와 관련한 연구변인으로 중도탈락의도를 검증하는 연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대학생은 미래사회를 준비하여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준비 단계이므로[8,19]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공에 대한 흥미를 잃어 중도탈락에 취약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의 26.4%는 향후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27.1%는 인턴십이나 취업 제안의 기회를 잃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 즉,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과 행동의 제약으로 발생한 진로탐색의 기회 부족은 이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대학생활을 통해 성공적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개인의 관심과 일치하는 직업이 추후,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과 같이[20] 전공에 대한 관심과 만족스러운 생활은 진로에 보다 명확한 확신을 줄 수 있다. 이는 진로와 관련한 긍정적인 의식은 중도탈락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과거 중도탈락의 주된 이유가 고등학교 성적[21], 학비 및 생활비 등 경제적 요인[22] 등

의 개인적인 측면 또는 대학의 재정지원[23], 전공에 대한 학업 성취[24]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대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건강 등의 요인으로 중도탈락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실기 보다는 이론 중심의 비대면 수업이 확산되면서[9,10] 야기된 인턴십, 교내 일자리 및 경험의 기회 상실 역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2].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도탈락을 예방할 수 있는 변인을 진로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진로와 관련된 요인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취업을 위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에 따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함양되어야 한다[25]. 진로와 관련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26]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확신있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8]. 그리고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끈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2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역시 진로를 위한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28] 진로와 관련한 다각적인 접근에서의 경험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인 진로동기를 함께 살펴본다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통해 보다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진로동기는 진로에 대한 몰입과 의사결정 등 행동을 예측하는 내적인 힘으로[29] 행동을 유지하거나 지속 가능하게 한다[30]. 즉, 진로동기는 진로행동을 이끌 수 있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31]. 진로동기를 통해 불가능한 수행에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므로[32] 진로동기가 높을수록 학업에 열중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현장을 경험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가 높아 질 수 있다. 때문에 진로동기는 중도탈락의도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동기에 영향을 주며,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두 변인이 매개변인으로 검증된 만큼[33] 본 연구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코로나19 시기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이 증가했음을 보고한 결과[3]와 코로나19는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집중력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학업성과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밝힌 연구[11]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26.4%의 대학생들은 향후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27.1%는 인턴십이나 취업 제안의 기회를 잃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된 연구가 있었다[2]. 결국,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는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중도탈락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로는 아동복지전공 예비보육교사들의 보육실습과 관련된 연구 [5], 상담전공 학부생의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34] 등 특정 세부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아동복지학의 세부 전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동기[33,35]와 진로내적동기[36] 간의 정적 상관관계로 밝혀 졌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동기[33]와 진로내적동기 [36]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가 매개하였고[33]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내적동기가 매개변인으로 효과가 검증되었다[3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가 중도탈락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연구는 미흡하였으나, 비슷한 맥락에서 변인은 상이하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8]가 있었다. 이는 코로나 19 이후 대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으며 중도탈락 등 학업의 유지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종합하면, 중도탈락을 예견할 수 있는 근거로 과거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재학생의 대학 자퇴율이 높다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져 왔지만[22,37] 현재는 다양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학업을 휴학하거나 중도탈락하는 발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38]. 그런데 코로나19로 발생한 심리-정서적 문제는 또 다른 중도탈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코로나19로 많은 변화가 야기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자칫 중도이탈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가 보호요인으로서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아동복지학 전공자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도와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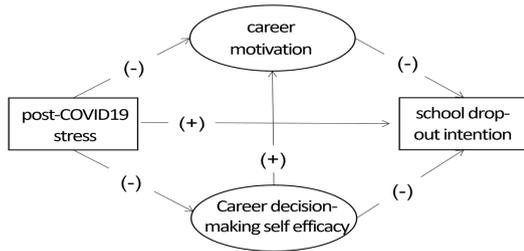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대학교 아동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137명이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특성을 연령, 학년, 거주유형, 진로관련 교과목 이수, 직업선택에 필요한 준비 정도, 2023 위드코로나(with corona) 교육과정 대응 만족도 및 교육환경(방역수칙 등) 만족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Table 1 참조).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7)

Spec.		Respondents	Percentage
Age	under the age of 20	12	8.8
	21years old	40	29.2
	22years old	43	31.4
	23years old	16	11.7
	over the age of 24	26	19.0
Grade	1 st grade	2	1.5
	2 nd grade	35	25.5
	3 rd grade	55	40.1
	4 th grade	45	32.8
Type of residence	Commute	82	59.9
	Live by oneself	41	29.9
	Dormitory	13	9.5
	ETC.	1	0.7
Career-related subjects	Completed	125	91.2
	Not yet completed	12	8.8

Spec.		Respondents	Percentage
Preparation for career choice	Not ready at all	4	2.9
	Not very ready	38	27.7
	Somewhat ready	47	34.3
	Quite ready	46	33.6
	Fully ready	2	1.5
Satisfaction with the curriculum response in COVID-19 pandemic	Very dissatisfied	1	0.7
	Dissatisfied	10	7.3
	Moderate	37	27.0
	Satisfied	76	55.5
Satisfaction with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 COVID-19 pandemic	Very satisfied	13	9.5
	Dissatisfied	3	2.2
	Moderate	30	21.9
	Satisfied	86	62.8
	Very satisfied	18	13.1

연령은 22세가 43명(31.4%)으로 설문에 가장 많이 참여했고, 21세 40명(29.2%), 24세 이상 26명(19.0%)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 55명(40.1%)으로 가장 많았고, 4학년 45명(32.8%), 2학년 35명(25.5%)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은 통학 82명(59.9%)으로 가장 많았고, 자취 41명(29.9%), 기숙사 13명(9.5%)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보면 이수자가 125명(91.2%)으로 약 90% 이상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에 필요한 준비정도를 보면, '그저 그렇다'의 응답이 47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어느정도 갖추고 있다' 46명(33.6%), '별로 갖추지 못했다' 38명(27.7%) 순으로 응답하였다. 2023 위드코로나 교육과정 대응 만족도를 보면, '만족'의 응답이 76명(55.5%)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 37명(27.0%), '매우 만족' 13명(9.5%) 순으로 나타났다. 2023 위드코로나 교육환경(방역수칙 등) 만족도의 응답결과를 보면, '만족' 86명(62.8%)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보통 30명(21.9%), 매우 만족 18명(13.1%) 순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2.2.1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PSS-10 척도[39]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PSS-C-10으로 재해석한 것[40]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역한 도구로 사용하였다[41]. 총 10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역문항(예: '1. 코로나19 이후 전염병과 관련해 개인적인 문제를 잘 처리할 자신이 있다', '코로나

19 이후 전염병과 관련된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낙관적으로)'의 경우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높다고 해석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8로 나타났다.

2.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CDMSES(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 척도[42]를 단축형인 CDMSES-SF(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로 개발[27]하여 제시한 것을 번안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알아본 문항을 사용하였다[28]. 자기평가 5문항, 정보수집 5문항, 목표설정 5문항, 진로계획 5문항, 문제해결 5문항 총 25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91이며, 하위요인인 문제해결 .66, 진로계획 .60, 목표설정 .76, 정보수집 .60, 자기평가 .68로 나타났다.

2.2.3 진로동기

본 연구에서 진로동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동기를 분석한 문항을 사용하였다[43]. 진로정체감 5문항, 진로통찰력 6문항, 진로탄력성 5문항 총 16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동기가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진로동기 .92이며, 하위요인인 진로정체감 .88, 진로통찰력 .85, 진로탄력성 .84로 나타났다.

2.2.4 중도탈락의도

본 연구에서 중도탈락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의 자퇴 욕구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도구[44]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도탈락의도를 알아본 문항[45]으로 사용하였다. 총 8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서 중도탈락을 고려하고 싶다는 생각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위에 제시한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Reliability coefficient of research tools

	Cronbach's α	number of item
1. post-COVID-19 stress	.78	10
2.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91	25
2-1. problem solving	.66	5
2-2. career planning	.60	5
2-3. goal setting	.76	5
2-4. information gathering	.60	5
2-5. self-evaluation	.68	5
3. career motivation	.92	16
3-1. career identity	.88	5
3-2. career insight	.85	6
3-3. career resilience	.84	5
4. school drop-out intention	.88	8

2.3 연구절차

본 연구에 앞서 사전연구 절차를 진행하였다. 2023년 2월 고등교육의 위드코로나(with corona) 학사규정이 명시된 것을 확인 한 후, 연구진이 수도권 대학교 아동복지학 전공자의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변인을 선정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야기될 수 있는 스트레스에 관심을 두었으며, S대학교 아동복지학과는 세부전공이 구분되어 있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된 2020년 부터 2022년 까지 진로에 대한 심도있는 상담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중점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2023년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아동심리학 박사 1명에게 연구도구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교 아동복지학 전공자 2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문항내용, 소요시간 등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사용하였다. 2023년 1학기가 시작되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이용하여 본 연구진이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여 총 137부를 회수하였고, 코딩하는 과정에서 이상값을 확인한 결과 제외된 설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인구학적 배경 특성을 연령, 학년, 거주유형, 진로관련 교과목 이수, 직업선택에 필요한 준비 정도, 2023 위드코로나(with corona) 교육과정 대응 만족도 및 교육환경(방역수칙 등) 만족도로 구분하여 빈도(%)로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분석하였고, 경향성은 평균(M)과 표준편차(SD), 정규성은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로 분석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의 경우, 사회과학 논문에서 .6이상 기준으로 이를 충족할 시, 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한다[46,47]. 셋째,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관계로 $-1 \leq r \leq 1$ 범위에서 $p < .05$, $p < .01$, $p < .001$ 의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확인하였다. 넷째, 측정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하 CFA)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표준화 계수(β) .4이상 기준으로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이하 SEM)으로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하였고, 다양한 적합도 지수(X^2 , X^2/DF , RMSEA, SRMR, NFI, IFI, TLI, CFI)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95% 신뢰구간 양측검정에서 부트스트랩(bootstrap)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를 분석하기 앞서, 연구변인인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의 경향성(M, SD)과 정규성(skewness, kurtosis)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Tendency and normality of variables (n=137)

	M	SD	skewness	kurtosis
1. post-COVID-19 stress	2.13	.56	.04	-.41
2.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76	.49	-.12	-.04
2-1. problem solving	3.51	.64	.05	.08
2-2. career planning	3.82	.52	-.27	.05
2-3. goal setting	3.73	.64	-.39	-.05
2-4. information gathering	3.76	.54	-.33	.37
2-5. self-evaluation	3.96	.47	-.05	-.13
3. career motivation	3.66	.59	.11	-.15
3-1. career identity	3.65	.80	-.29	-.43
3-2. career insight	3.87	.59	.02	-.21
3-3. career resilience	3.41	.70	-.05	.34
4. school drop-out intention	1.60	.69	1.22	.87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의 평균은 2.13점(SD=.56)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평균은 3.76점(SD=.49)이고, 하위영역인 문제해결 3.51점(SD=.64), 진로계획 3.82점(SD=.52), 목표설정 3.73점(SD=.64), 정보수집 3.76점(SD=.54), 자기평가3.96점(SD=.47)으로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진로동기 평균은 3.66점(SD=.59)이고, 진로정체감 3.65점(SD=.80), 진로통찰력 3.87점(SD=.59), 진로탄력성 3.41점(SD=.70)으로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의도의 평균은 1.60점(SD=.69)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의 왜도는 -.39부터 1.22범위로 나타났고, 첨도는 -.43부터 .87범위로 나타나 정규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1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 간의 관계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 간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관계로 분석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중도탈락의도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r=.225$, $p < .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292$, $p < .01$)과 하위요인인 문제해결($r=-.229$, $p < .01$), 진로계획($r=-.274$, $p < .01$), 목표설정($r=-.321$, $p < .01$), 정보수집($r=-.226$, $p < .01$), 자기평가($r=-.214$, $p < .05$)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진로동기($r=-.366$, $p < .01$)와 하위요인인 진로정체감($r=-.269$, $p < .01$), 진로통찰력($r=-.314$, $p < .01$), 진로탄력성($r=-.364$, $p < .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2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3.2.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변인인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중도탈락의도 요인을 제외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의 설명이 적절한지 확인을 위해 CFA로 규명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X^2=46.830(df=19, p=.000, X^2/DF=2.443)$, SRMR=.0377, NFI=.942, IFI=.965, TLI=.947, CFI=.964, RMSEA(LO-HI)=.094(.067-.132)로 나타났다. 분석된 적합도 결과로 보면, 측정모형은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Table 5 참조).

Table 4. Degree and Correlations among

(n=137)

	1.	2.	2-1.	2-2.	2-3.	2-4.	2-5.	3.	3-1.	3-2.	3-3.	4.
1. post-COVID-19 stress	1											
2.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426**	1										
2-1. problem solving	-.409**	.871**	1									
2-2. career planning	-.446**	.889**	.741**	1								
2-3. goal setting	-.290**	.885**	.731**	.716**	1							
2-4. information gathering	-.355**	.867**	.646**	.704**	.712**	1						
2-5. self-evaluation	-.365**	.847**	.625**	.738**	.651**	.748**	1					
3. career motivation	-.365**	.800**	.727**	.685**	.763**	.691**	.592**	1				
3-1. career identity	-.281**	.714**	.653**	.615**	.688**	.593**	.540**	.884**	1			
3-2. career insight	-.300**	.671**	.562**	.573**	.644**	.601**	.534**	.864**	.671**	1		
3-3. career resilience	-.361**	.665**	.649**	.568**	.624**	.580**	.443**	.818**	.567**	.554**	1	
4. school drop-out intention	.225**	-.292**	-.229**	-.274**	-.321**	-.226**	-.214*	-.366**	-.269**	-.314**	-.364**	1

**p<.01, *p<.05

Table 5.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X ²	X ² /DF	RMSEA (LO-HI)	SRMR	NFI	IFI	TLI	CFI
model fit	46.830	2.443	.094 (.067-.132)	.0377	.942	.965	.947	.964

측정모형의 경로계수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6. The factor value of measurement model & result of validity evaluation

sub-factor	factor	B	β	S.E.	C.R.	P	CR(t)	AVE
self-evaluation		1.000	.833					
information gather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839	.859	.068	12.4	***		
goal setting		1.027	.861	.083	12.438	***	.974	.884
career planning		.836	.832	.071	11.791	***		
problem solving		.709	.798	.064	11.059	***		
career identity		1.000	.819					
career insight	career motivation	.709	.782	.071	9.927	***	.903	.757
career resilience		.781	.727	.086	9.052	***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평가(β=.833), 정보수집(β=.859), 목표설정(β=.861), 진로계획(β=.832), 문제해결(β=.798)과 진로동기의 하위요인인 진로정체감(β=.819), 진로통찰력(β=.782), 진로탄력성(β=.727)은 표준화계수(β) .4이상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성을 보면, C.R.(t) 값은 .903부터 .974 범위로 나타났고, AVE 값은 .757부터 .884범위로 나타났다.

Table 6를 바탕으로 측정모형을 Fig.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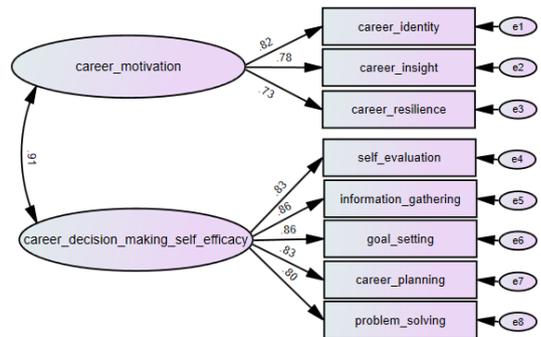


Fig. 2. Measurement Model

3.2.2 구조모형 검증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는 SEM으로 알아보았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X²=64.624(df=31, p=.000, X²/DF=2.085), SRMR=.0394, NFI=.926, IFI=.960, TLI=.941, CFI=.959, RMSEA(LO-HI)=.089(.058-.120)로 나타났다. 적합도 분석 결과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과 본 자료는 구조모형을 잘 설명하고 있었다(Table 7 참조).

Table 7. The result of proposition model

	X ²	X ² /DF	RMSEA (LO-HI)	SRMR	NFI	IFI	TLI	CFI
model fit	64.624	2.085	.089 (.058-.120)	.0394	.926	.960	.941	.959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eta = -.446, p < .001$)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진로동기($\beta = .014, p > .05$)와 중도탈락의도($\beta = .120, p > .05$)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동기($\beta = .919, p < .001$)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중도탈락의도($\beta = .402, p > .05$)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동기가 중도탈락의도($\beta = -.717, p < .05$)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able 8 참조).

Table 8. The result of hypotheses testing

path	B	β	S.E.	C.R.	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428	-.446	.081	-5.304	***
career motivation	.016	.014	.075	.211	.833
school drop-out intention	.148	.120	.116	1.28	.200
career motivation	1.109	.919	.117	9.483	***
school drop-out intention	.515	.402	.457	1.127	.260
school drop-out intention	-.761	-.717	.384	-1.98	.048
self-evaluation	1	.835			
information gathering	.841	.864	.067	12.605	***
goal setting	1.015	.854	.082	12.372	***
career planning	.832	.831	.070	11.849	***
problem solving	.708	.799	.064	11.143	***
career identity	1	.809			
career insight	.716	.780	.073	9.842	***
career resilience	.803	.738	.087	9.174	***

*** $p < .001$

3.3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의 매개효과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 양측검정에서 부트스트랩(bootstrap)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적($\beta = -.446, p < .05$)으로 영향을 주고, 진로동기에 직접적($\beta = .014, p > .05$)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간접적($\beta = -.410, p < .05$)으로 영향을 주고, 중도탈락의도에 직접적($\beta = .120, p > .05$), 간접적($\beta = .105, p > .05$)으로 영향을 주진 않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동기에 직접적($\beta = .919, p < .05$)으로 영향을 주고, 중도탈락의도에 직접적($\beta = .402, p > .05$)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간접적($\beta = -.659, p < .05$)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동기는 중도탈락의도에 직접적($\beta = -.717, p < .05$)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참조).

Table 9. Decomposition of the total effect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446*		-.446*
career motivation	.014	-.410*	-.396*
school drop-out intention	.120	.105	.225
career motivation	.919*		.919*
school drop-out intention	.402	-.659*	-.257*
school drop-out intention	-.717*		-.717*

* $p < .05$

본 연구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동기→중도탈락의도'의 경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가 완전 매개효과임이 밝혀진 결과로 중도탈락의도를 상쇄하기 위해 이들 변인이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된 것이다.

Table 8을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Fig.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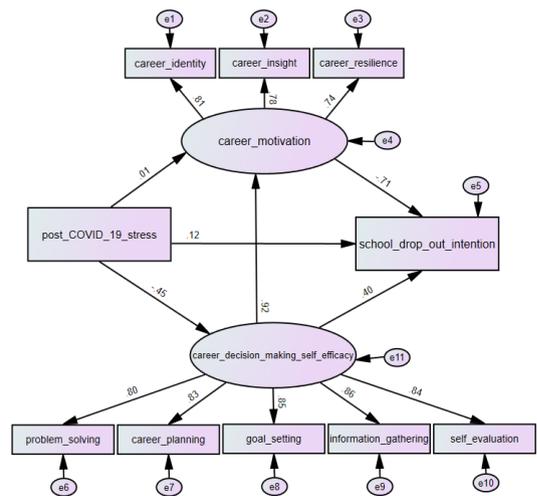


Fig. 3. Structural Model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중도탈락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탈락의도를 중심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하위요인인 문제해결, 진로계획, 목표설정, 정보수집, 자기평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진로동기와 하위요인인 진로정체감, 진로통찰력, 진로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 간의 정적 상관관계임을 밝힌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33,35]. 본 연구결과는 다음에 제시하는 구조적 관계 및 매개효과 검증결과와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진로동기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동기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코로나19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의 증가를 보고한 결과[3]와 코로나19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학업성과 및 집중력의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11]와 불일치 하는 것이다. 즉,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다양한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중도탈락을 야기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이는 진로동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혀 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마찬가지로 유사한 맥락에서 코로나19로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2]의 의미를 재확인 한 것이다.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동기[33]와 진로내적동기[36]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동기 → 중도탈락의도’의 경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가 매개하였고[33]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내적동기가 매개변인으로 효과가 검증된 연구결과[36]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중도탈락의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가 검증된 만큼 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예전과는 달리 현재는 대학 정책을 통한 특성화 지원에 이르기 까지 대학과 연계한 진로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17,48]. 이에 현장 프로젝트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과 같이[49] 대학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진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대학과 학과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과 차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인 S대학교 아동복지학부의 진로를 보면, 유아교육기관 또는 상담기관,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부전공이 구분되어 있다. 이에 입학 초기부터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본다. 예를 들면,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학과 차원에서의 Pass/Fail 교과목을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전공을 이해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 세부전공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본 대학이 세부전공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 차원의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또는 나노 디그리(nano degree) 모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부·복수 전공의 부담을 완화시켜 다전공 이수제를 도입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공만족도를 향상시켜 중도탈락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본 연구대상인 수도권 S대학교는 학부체제로 아동·청소년복지전공, 아동보육·교육전공, 아동심리상담전공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세부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면 이에 알맞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복 교과목이 있어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더욱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부·복수 전공의 경우, 이수학점 취득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디그리 모형(degree model)을 통한 트랙제(track)를 권하는 바이다. 이는 타 세부 전공자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디그리 전공을 위한 교수와의 긴밀한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대학차원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진로에 대한 직접 체험은 졸업 후, 직장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운영될 것을 강조하는 바이

다. 많은 대학에서 전공과 관련한 인턴십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단순히 전공과 관련한 직무를 보거나 체험하는 것을 넘어 성과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지표화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성공적인 실습을 위해서는 일련의 유사한 경험을 반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결과[50]와 같이, 실습의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때 지역사회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도탈락의도는 학년에 따라 원인이 상이한데 특히, 신입생들은 코로나19로 휴학을 하거나 학교를 쉬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년에 따른 코로나19 이후 나타나는 심리·정서적인 부분의 개입을 달리 접근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신입생에게는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공동체 활동 또는 진로에 대한 탐색을 주로 지원한다면, 고학년은 실제 산업체에서 배울 수 있는 실습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더불어 낮은 자신감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범위를 제한하여 성공적인 직업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49]. 이에 직업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함양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교육 전략의 구현이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이끄는 것과 같이 [31] 진로에 대한 경험학습의 자기주도형 교육전략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요인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로 설정하여 이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대학과 학과 차원에서 제시하여 변화하는 사회로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전형 입학생의 경우 다른 전형에 비해 중도탈락률이 낮음을 밝힌 연구결과[51]를 통해 전형유형에 따라 중도탈락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형유형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추후, 신입생이 다른 학년에 비해 중도탈락이 높다는 연구결과[52]를 바탕으로 전형유형에 따른 중도탈락의도를 세밀하게 알아볼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아동복지학 전공자로 한정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대표성에 한계를 갖는다. 이는 정보제공에서의 편향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어 연구결과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추후,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체 대학생 또는 비비례 표집을 활용한 모집단 설정을 권고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에 코로나19와 중도탈락률 간의 관계성을 보다 면밀하게 알아보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때문에 전공, 지역 및 학제(수도권/지방, 전문대/일반대)에 따른 차이검증을 통해 대학의 이슈인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본다.

References

- [1] H. Christie, M. Munro, H. Rettig, "Making ends meet: Student incomes and debt", *Studies in Higher Education*, Vol.26, No.3, pp.363-383, October 2001. DOI: <https://doi.org/10.1080/03075070120076318>
- [2] J. Lee, M. Solomon, T. Stead, B. Kwon, L. Ganti, "Impact of COVID-19 on the mental health of US college students", *BMC Psychology*, Vol.9, No.1, pp.95, June 2021. DOI: <https://doi.org/10.1186/s40359-021-00598-3>
- [3] Statistics Korea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Korean Social Trends 2022, Report, Statistics Korea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Korea, pp.6-7.
- [4] H. J. Kim, "Personal intelligence affecting child welfare department student's lesson satisfactio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Vol.7, No.1, pp.21-34, June 2009.
- [5] K. O. Lim, "A Study on dilemma experienced by nursery school teacher students majoring children's welfare during nursery practi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8, pp.107-116, August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6.16.08.107>
- [6] S. Lee, J. V. Powell, "Manifestation of pre-service teachers' interpersonal skills: Effects of simulated and real experienc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Systems*, Vol.34, No.3, pp.317-339, March 2006. DOI: <https://doi.org/10.2190/B4E6-K8D4-MYBD-VHT8>
- [7] O. D. Göksün, A. A. Kurt,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ervice teachers' use of 21st century learner skills and 21st century teacher skills", *Education and Science*, Vol.42, No.190, pp.107-130, May 2017. DOI: <https://doi.org/10.15390/EB.2017.7089>
- [8] H. Y. Jo,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department, university satisfaction, and adaptation to

-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4, No.5, pp.250-259, May 2023.
DOI: <https://doi.org/10.5762/KAIS.2023.24.5.250>
- [9] C. W. Park, S. W. Kim, “Experience in field practice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82, pp.111-140, May 2022.
DOI: <https://doi.org/10.15300/jcw.2022.82.3.111>
- [10] M. T. Hebebcı, Y. Bertiz, S. Alan, “Investigation of views of students and teachers on distance education practices during the coronavirus(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in Education and Science*, Vol.4, No.4, pp.267-282, September 2020.
DOI: <https://doi.org/10.46328/ijtes.v4i4.113>
- [11] C. Son, S. Hegde, A. Smith, X. Wang, F. Sasangohar, “Effects of COVID-19 on college students' mental health in the united states: Interview survey study”,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Vol.22, No.9, pp.e21279, September 2020.
DOI: <https://doi.org/https://doi.org/10.2196/21279>
- [12] L. Hawryluck, W. L. Gold, S. Robinson, S. Pogorski, S. Galea, R. Styra, “SARS contro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quarantine, Toronto, Canada”, *Emerging Infectious Disease*, Vol.10, No.7, pp.1206-1212, July 2004.
DOI: <https://doi.org/10.3201/eid1007.030703>
- [13] M. Mihashi, Y. Otsubo, X. Yinjuan, K. Nagatomi, M. Hoshiko, T. Ishitake, “Predictive factors of psychological disorder development during recovery following SARS outbreak”, *Health Psycholog*, Vol.28, No.1, pp.91-100, June 2009.
DOI: <https://doi.org/10.1037/a0013674>
- [14] S. Taylor, C. A. Landry, M. M. Paluszek, T. A. Ferguson, D. McKay, G. J. G. Asmundson,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OVID stress scale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Vol.72, No.102232, pp.1-7, May 2020.
DOI: <https://doi.org/10.1016/j.janxdis.2020.102232>
- [15] J. Qiu, B. Shen, M. Zhao, Z. Wang, B. Xie, Y. Xu, “A nationwide survey of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hinese people in the COVID-19 epidemic: Implicat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General Psychiatry*, Vol.33, No.2, pp.e100213, March 2020.
DOI: <https://doi.org/10.1136/gpsych-2020-100213>
- [16] C. Wang, R. Pan, X. Wan, Y. Tan, L. Xu, C. S. Ho, “Immediate psychological responses and associated factors during the initial stage of the 2019 coronavirus disease (COVID-19) epidemic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17, No.5, pp.1729, March 2020.
DOI: <https://doi.org/10.3390/ijerph17051729>
- [17] H. Y. Jo, S. W. Oh, “The effect of university administrative staff's perception of specialized projects on career exploration for present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ption, satisfaction, importance of university specialization polic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4, No.1, pp.27-40, January 2023.
DOI: <https://doi.org/10.5762/KAIS.2023.24.1.27>
- [18] R. W. Lent, S. D. Brown, “Social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16, No.1, pp.6-21, February 2008.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07305769>
- [19] S. Guay, V. Billette, A. Marchand, “Exploring the links between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ocial support: Process and potential research avenu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19, No.3, pp.327-338, June 2006.
DOI: <https://doi.org/10.1002/jts.20124>
- [20] D. Wulandari, B. S. Narmaditya, W. Wahjoedi, Wahjoedi, S. H. Utomo, M. Witjaksono, P. Hardinto, M. P. Priambodo, “Factors affecting students in choosing community economy in development economics program, universitas negeri malang”,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Vol.14, No.6, pp.71-79, January 2017.
- [21] M. C. Voelkle, N. Sander, “University dropout: A structural equation approach to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Vol.29, No.3, pp.134-147, January 2008.
DOI: <https://doi.org/10.1027/1614-0001.29.3.134>
- [22] D. S. Fike, R. Fike, “Predictors of first-year student retention in the community college”, *Community College Review*, Vol.36, No.2, pp.68-88, October 2008.
DOI: <https://doi.org/10.1177/0091552108320222>
- [23] V. Tinto, “Dropout from higher educ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45, No.1, pp.89-125, March 1975.
DOI: <https://doi.org/10.2307/1170024>
- [24] J. Allen, S. B. Robbins, A. Casillas, I. Oh, “Third-year college retention and transfer: Effects of academic performance, motivation, and social connectednes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Vol.49, No.7, pp.647-664, November 2008.
DOI: <https://doi.org/10.1007/s11162-008-9098-3>
- [25] C. P. Neck, J. D. Houghton, “Two decades of self-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Past development present trends, and future possibilitie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21, No.4, pp.270-295, June 2006.
DOI: <https://doi.org/10.1108/02683940610663097>
- [26] V. S. Solberg, G. E. Good, A. R. Fischer, S. D. Brown, D. Nord,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search activities: Relative effect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human agen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2, No.4, pp.448-455, October 1995.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42.4.448>
- [27] N. E. Betz, K. L. Klein, K. M. Taylor,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4, No.1, pp.47-57, July 1996.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9600400103>
- [28] E. J. Lee, Effects of Career-Planning Group Counseling for Multipotential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50-51, 2001.
- [29] F. Guay, C. F. Ratelle, C. Senécal, S. Larose, A. Deschênes, “Distinguishing developmental from chronic career indecision: Self-efficacy, autonom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14, No.2, pp.235-251, May 2006.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05283975>
- [30] M. London, R. A. Noe, “London’s career motivation theory: An update on measurement and research”,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5, No.1, pp.61-80, January 1997.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9700500105>
- [31] F. Salili, M. K. Lai, “Learning and motivation of Chinese students in Hong Kong: A longitudinal study of contextual influences on students’ achievement orientation and performance”, *Psychology in the Schools*, Vol.40, No.1, pp.51-70, January 2003.
DOI: <https://doi.org/10.1002/pits.10069>
- [32] D. J. Scott, A. T. Church, “Separation/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cidedness and commitment: Effects of parental divor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58, No.3, pp.328-347, June 2001.
DOI: <https://doi.org/10.1006/jvbe.2000.1769>
- [33] Y. S. Kang, K. S. Park,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call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decision-level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12, pp.429-441, June 2022.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2.429>
- [34] N. J. Jo,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re competencies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unseling”,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7, No.3, pp.23-43, June 2016.
DOI: <https://doi.org/10.15703/kjc.17.3.201606.23>
- [35] J. W. Lee, E. S. Choi,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social support, career motiv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8, No.1, pp.33-54, February 2015.
DOI: <https://doi.org/10.22955/ace.18.1.201502.33>
- [36] K. H. Du,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university students’ self-concept clarit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trinsic motiv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4, No.2, pp.635-650, April 2023.
DOI: <https://doi.org/10.22143/HSS21.14.2.45>
- [37] J. Smith, R. Naylor, “Dropping out of university: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probability of withdrawal for UK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Statistics in Society*, Vol.164, No.2, pp.389-405, March 2001.
DOI: <https://doi.org/10.1111/1467-985X.00209>
- [38] E. W. Cho, B. K. Kim, S. H. Bae, “Experiences during the leave of absence and their impact on growth and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21, No.1, pp.125-154, March 2020.
DOI: <https://doi.org/10.15753/aje.2020.03.21.1.125>
- [39] S. Cohen, G. Williamson, Perceived stress in a probability sample of the United States. In S. Spacapan, & S. Oskamp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health: Claremont symposium on applied social psychology*, p.256, Newbury Park, CA: Sage, 1988, pp.31-67.
- [40] P. J. C. Pedrozo, C. M. J. Pedrozo, A. A. Campo, “Perceived stress associated with COVID-19 epidemic in Colombia: An online survey”, *SciELO*, Vol.36, No.5, pp.e00090520, June 2020.
DOI: <https://doi.org/10.1590/0102-311x00090520>
- [41] J. Y. Ha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ual Corona Stress and Mental Well-being: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Anxiety through Health Care Awareness and Resilience. Master’s thesis, Hanshin University, Gyeonggi-do, Korea, pp.18-19, 2021.
- [42] K. M. Taylor,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No.1, pp.63-81, February 1983.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
- [43] B. K. Kim,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Lead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areer Motivation of Undergraduate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64-65, 2012.
- [44] C. K. Gu, J. Y. Hong, Y. J. Jang,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Related Characteristics of Youth Dropout Desires: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Strategies for Children Considering Leaving School*, p.170, Seoul: Seoul Youth General Counseling Office, 2001, pp.19-20.
- [45] Y. B. Ko, A study on moderating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in college students’ indecision on career and their dropout inten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pp.19-20, 2018.
- [46] J. J. Song,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using SPSS/AMOS for research, p.369, 21st Century Publishing History, 2011, pp.108.
- [47] H. S. Lee, J. H. Lim, Methodology for writing social science papers: Utilizing SPSS techniques, p.496, JHJbook, 2014, p.105.
- [48] S. W. Oh, H. Y. Jo,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staff’s perception, satisfaction, and importance of university specialization polic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3, No.6, pp.123-145, March 2023.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3.23.6.123>

- [49] G. Reddan, "Enhancing students' self-efficacy in making positive career decisions", *Asia-pacific Journal of Cooperative Education*, Vol.16, No.4, pp.291-300, January 2015.
- [50] M. Yorke, L. Harvey, "Graduate attributes and their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Research*, Vol.2005, No.128, pp.41-58, December 2005.
DOI: <https://doi.org/10.1002/ir.162>
- [51] S. W. Lee, K. B. Park,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and dropou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11, pp.1185-1210, June 2019.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9.19.11.1185>
- [52] H. Christie, M. Munro, T. Fisher, "Leaving university early: Exploring the differences between continuing and non-continuing student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Vol.29, No.5, pp.617-636, October 2004.
DOI: <https://doi.org/10.1080/0307507042000261580>

조 혜 영(HyeYoung Jo)

[정회원]



- 2013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17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2022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혁신교수법, 종단연구, AI

이 희 연(HeeYeon Yi)

[정회원]



- 2007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아동심리치료전공 (문학석사)
- 2015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아동심리치료전공 (철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아동청소년정신병리, 놀이치료, 임상심리